

주린다 슬로바키아 총리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미쿨라쉬 주린다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슬로바키아 총리로는 처음 대한민국을 방문하신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께서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의 번영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세제와 연금·보건·교육 등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각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하며, 반드시 큰 결실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슬로바키아는 유럽 심장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통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EU 가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타트라 호랑이'의 무서운 저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미 자동차·전자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관심에 비춰 볼 때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께서도 우리 기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두 나라 국민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켜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오전에 가진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은 실질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브라티슬라바에 상주공관을 개설한 것도 양국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는 각하의 이번 방문이 무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각하,

슬로바키아는 아름다운 고성과 온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도 1년 중 가장 좋다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우리 국민의 따뜻한 우정을 확인하시고, 기억에 남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의 건강과 슬로바키아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양국 간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